



인천 구월동 모래내시장에 걸린 착한 임대인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현수막. /연합뉴스

# 착하다 착한 건설인

## ‘착한 임대인 운동’ 릴레이 동참 신입·경력직 일자리 창출 적극

국내 건설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도 인재 모집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며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부영주택, 대방건설 등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포스코건설은 2020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은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모집분야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정보기술(IT) 등이다. 응시자격은 2020년 8월 이전 졸업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로서 전문 자격증 보유자나 어학능력 우수자이다.

부영주택은 29일까지 신입사원과 함께 경력사원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설계이며 응시자격은 신입과 경력 모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자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통 및 가능자를 공통요건으로 한다. 신입은 건축학(건축설계) 관련 전공자, 경력직은 동종업무 7년 이상 경력자로서 공동주택 설계 경력, 일반건축 대형 프로젝트 설계경력, 건축사 자격소지, BIM 유경

험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방건설도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기술본부, 설계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본부 안전보건관리부, 법무실 등의 모집분야가 있다. 24일까지 대방건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은 부분별 경력 충족자,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지방현장 근무 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공통사항으로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현대건설 모집분야는 프로젝트 사업관리이며 25일까지 현대건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은 해외건설 프로젝트 경력 5년 이상 불어 활용능력 우수자, 알제리 프로젝트 경력자, 영어 활용능력 우수자, 해외 발전사업 유경력자 등이다.

대림산업은 플랜트 설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플랜트건축설계, 계장설계, 공정설계, 배관설계, 설계HSE, 소방설비설계, 장치설계 등이다. 오는 19일까지 대림산업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은 학사 이상, 관련 전공자로서 분야별 경력 충족자,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GS건설도 건축시공, 설비시공, 전기시공 등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오는 31일까지 GS건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은 직무별 경력 3년 이상으로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 유경력자,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이밖에도 건설업계는 ‘착한 임대인’ 릴레이에 동참하며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더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건설사들은 자사가 보유중인 임대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호반그룹은 상업시설인 ‘아브뉴프랑’과 레저사업부문 호반호텔&리조트(구 리솜리조트)는 200여 임대 매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게 최장 6개월간 임대료의 10~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호반건설 중심의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도 마스크 3만장을 구매해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LH는 총 3327개의 임대상가를 대상으로 향후 6개월간 상가 임대료 25%를 인하한다. LH는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임대상가를 대상으로는 할인폭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회사가 보유한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를 비롯해 5개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물량에 대해 2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코로나 정면승부 나선 ‘대·대·광’ 분양시장

제로금리 등 중장기적 호재 기대 대전·대구·광주 등 분양 기지개 대구 청라힐스자이 청약 141대 1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대전·대구·광주 등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리인하,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신속한 대책들이 뒤따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의견이 나온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4월 넷째 주부터 46주 연속 아파트 값이 오름세다. 지난 3일 대구 ‘청라힐스자이’는 1순위에서 5만5700여명이 청약해 평균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전·대구·광주(대대광) 지역 분양아파트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대전시 55.46대 1 ▲광주광역시 39.14대 1 ▲대구광역시 18.07대 1 등의 강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평균 13.77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지역은 청약자격이나 대출요건 등이 까다롭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은 이

〈대·대·광 주요 분양 아파트〉

지역	단지명	총가구수	전용면적(㎡)	일반분양	분양시기
대구	뉴센트럴 두산위브 더제니스	316	84	316	3월
	월배 라온프라이빗 디에	555	84-222	555	4월
	서대구역 반도유보라센텀	1678	46-84	1226	상반기
대전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	1501	78-84	1501	3월
	유성둔곡지구 3블록	760	64-84	760	4월
광주	힐스테이트 첨단	315	84-134	315	3-4월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가 분양시장 흥행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분양아파트로 두산건설은 이달 말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316가구(84A㎡·84B㎡)와 오피스텔 56실(84㎡)을 공급한다. 서대구고속철도역(2021년 6월 예정) 개발과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라운건설도 달서구 진천동 일대에 ‘대구 월배 라온프라이빗 디엘’을 선보이고, 반도건설은 서구 평리동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을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서한은 이달 말 대전광역시 유성

구 둔곡동 둔곡지구 A1·A2블록에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 1501가구, 1단지에는 공동주택 816가구(59㎡ 일반분양 546가구), 2단지 685가구(78-84㎡)를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오는 4월 대전 둔곡지구 A3블록에서 63~84㎡ 758가구를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현대건설은 3~4월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지구(쌍암동 654-2)에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첨단’ 315가구(84~134㎡)를 공급한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첨단역(2024년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순현금 3700억 가입자 132만명 시장재편 속 인수 대상 ‘최선호’

## 株라콜라의 종목 종합유선방송 | 현대에이치씨엔 |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우수한 현금창출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17일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순현금과 국내 방송사업자 시장재편에 따른 인수합병(M&A)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는 현대에이치씨엔(현대HCN)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대에이치씨엔은 1992년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현재 총 78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권역 중 8개 권역(관악·서초·동작·관악·충북·금호·경북·부산)에서 사업을 진행중이고, 약 132만명(시장 점유율 4.1%)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에이치씨엔은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설치해주고 매달 받는 서비스 이용료가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광고 수수료(34%), 인터넷 전화 설치를 통해 발생한 이용료(14%) 순이다.

현대에이치씨엔의 강점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다. 매년 300억~400억원의 안정적인 이익 확보로 2019년 3분기 기준 약 3700억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현재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현금 보유액으로 자산가치 부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유선방송시장 내 활발한 M&A도 현대에이치씨엔 투자 매력 높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매력적인 인수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 연구원은 “최근 해외 OTT(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의 국내 콘텐츠 시장 침투를 우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허용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KT 31.3%, LG유플러스 24.7%, SK텔레콤 24.0%, 기타 20%로 재편될 것”이라



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1위 사업자를 위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추가적인 M&A가 활발할 전망”이라고 했다.

국내 유선방송사업자 중 피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중 현대에이치씨엔을 최선호 기업으로 꼽았다.

최 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가장 매력적인 인수대상으로 판단된다”면서 “최대 5300억원 이상의 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경쟁업체인 CMB의 경우 대전, 충청, 세종 등 지역 중심 가입자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딜라이브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6600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어서다.

리서치알음은 현대에이치씨엔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보다 0.8% 하락한 290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도 8.7% 줄어든 37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속되는 케이블 방송 가입자수 감소와 광고단가 인하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최 연구원은 “최근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전제품 렌탈, 디지털 사이니지 등에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전년 대비 역성장은 다소 제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리서치알음은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긍정적인 추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46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예상 EBITDA(상각전영업이익) 731억원에 EV/EBITDA(시장가치/영업이익) 2.0배를 적용한 결과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 KB증권 삼성 기초자산 ELS 등 9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18일까지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9종의 상품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KB able ELS 1201호(1스탁 2인덱스 스텝다운형)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6.5%(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KB able ELS 1202호(1스탁 2인덱스 슈퍼리자드 스텝다운형)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



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7.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KB able ELS 1203호(1스탁 2인덱스 스텝다운형)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HSCEI,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8.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손업지 기자